

Biweekly Tex+Fa Brief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격주로 섬유패션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업계 및 해외시장 동향, 주요 통계 자료 등을 정리하여 “Biweekly Tex+Fa Brief”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주요 이슈

☞ 산업부, 내년도 예산 7조 4,499억원

- 산업부 '16년 예산안 규모는 7조4,499억원으로 올해 대비 6.9% 감소함. 산업부는 경제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활력 제고(2,956억원→3,126억원), 제조업 혁신 3.0(3,185→3,835억원), 에너지 신산업(770억원→1,697억원) 등에 역점두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힘. 수출활력 측면에서는 신흥시장, 한류 확산지역 등 수출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478억원→526억원)할 계획. 제조업 혁신 3.0을 통해서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40억원→112억원)하고, 스마트 생산방식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50억원→99억5,000만원)도 강화키로 함. 아울러, 노후산업단지 환경 개선 투자도 대폭 확대(375억원→690억원)됨.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모델을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신규로 추진(314억원)할 예정

☞ 섬산련 '15년 제3차 섬유패션 스트림간 협력 간담회 개최

- 섬산련은 9월 9일(수) 섬유센터에서 주요 섬유패션 기업 및 단체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년 제3차 섬유패션 스트림간 협력 간담회'를 개최. 금번 간담회에는 신소재 컬렉션 개최 결과와 스트림간 R&D 전문위원회 운영 방안, 제3기 글로벌 생산현장 책임자 양성 과정, 프리뷰 인 서울 2015 전시회 개최 결과, 2015 섬유패션업계 CEO포럼 개요 등이 보고됨.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 박일준 실장이 정부인사로는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수출 확대 및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스트림간 협력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 아울러, 안전보호용 섬유 법제화,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 등 업계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함

☞ 섬산련 성기학 회장, ITMF 총회에서 주제 발표

- 섬산련 성기학 회장은 9월 9일~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2015 ITMF(국제섬유생산자연맹) 총회'에 참석, '최근 의류브랜드의 소싱 결정요인과 변화하는 세계공급망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 성기학 회장은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 하에서 한국 섬유패션산업은 차별화된 브랜드,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로 끊임없이 제품의 가치를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해 가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바이어의 소싱 결정요인으로 ①재무적 안정성 및 경영진의 역량, ②기업의 사회적 책임능력, ③초단기 납품과 생산지역의 다각화 능력, ④시장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제품 공급능력 등을 제시.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ITMF 선들러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금번 발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섬유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업계 동향

☞ 국내 화섬원료 생산업체 통합 추진

- 석유화학 업계가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한화종합화학·롯데케미칼·효성의 테레프탈산(TPA) 설비가 업계 1위인 한화종합화학으로 통합논의가 진행. 정부와 석유화학업계,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종합화학·한화케미칼·롯데케미칼·효성·LG화학·SK종합화학 등으로 구성된 '석유화학 사업 구조조정 개편 추진 민간협의체'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율 사업 구조조정 개편안을 잠정 확정. 한화종합화학 등 3사는 일명 원샷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사업재편에 나선다는 방침. 한편, 국내 화섬업계는 통폐합으로 인해 TPA 생산이 일부 기업에 독점되거나 수급 불균형으로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약화될 것을 우려

☞ 백화점 3社 특약매입 비중 3년째 70%대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체익 의원이 롯데·현대·신세계 등 유통업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품업체가 매출과 재고 부담을 져야하는 '특약매입' 비중이 지난해 7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약매입이란 반품을 조건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외상매입하는 방식으로 거래 과정에서 입점 업체가 관리비 등 각종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최종적으로는 재고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방식. 공정위는 지난 '12년부터 백화점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할 때 특약매입이 아닌 중소기업과의 직매입 비중을 늘리는 업체에 가산점을 매겨 평가하고 있지만, '12년 이후에도 특약매입 비중은 3년째 70%대에 머무름.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올해 안으로 백화점·대형마트·TV 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직매입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

☞ 부산시, 섬유패션 정책포럼 개최

- 섬유패션 도시인 부산이 제2의 중흥기를 마련하고자 부산시와 부산섬유패션산업(연)가 공동으로 주최한 섬유패션 정책포럼이 지난 9월 17일(목) 해운대 센텀사이언스파크 더 하우스홀에서 개최. 이날 포럼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화영 산업부 섬유세라믹과장, 박만영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장 등 섬유패션 업계 CEO 등 100여명이 참석. 동 행사에서는 '한국 섬유산업 발전 정책과 부산의 대응과제', '부산지역 섬유패션 발전방안과 부산 패션비즈니스센터 구축 및 부산 진시장 일원 고도화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부산지역 섬유패션산업 역량강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종합 토론이 진행됨

☞ '섬유패션업계 CEO포럼' 10월 5일 개최

- 섬산련은 10월 5일(월)부터 7일(수)까지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5 섬유패션업계 CEO 포럼'을 개최. 13회째를 맞이한 섬유패션업계 CEO포럼은 '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과 섬유패션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평창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되며, 메르스 사태로 6월 10일 개최 예정이었던 행사가 연기되어 개최됨. 주요 행사로는 5일(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장일범 음악평론가, 이종욱 서강대학교 석좌교수,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등의 강연이 진행됨. 아울러 섬산련 회장배 골프대회, 등산, 문화관광지 투어 등의 레저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 * 문의 : CEO포럼 사무국(Tel : 02-528-4011)

◆ 해외시장 동향

☞ 미국 온라인 시장 동향과 전망

- 인터넷 리테일러(Internet Retailer)에 따르면, '14년 미국 온라인 판매는 3,000억불을 돌파, '18년에는 4,000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대표적인 온라인 전문 매장인 아마존의 '13년 매출 증가율은 27.2%로 미국 10대 유통업체의 평균 매출 증가율인 4.3%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저렴한 가격과 트렌드를 따르는 SPA 브랜드가 온라인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최근 미국 의류 브랜드인 Gap이나 아메리칸어패럴은 빠른 트렌드 변화에 압박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으로, 아메리칸어패럴의 경우 18개월 동안 매장 및 인원 축소 등 3,000만불을 절감할 계획이며, Gap은 시장 점유율이 5% 이하로 하락함. 반면, 패스트 패션의 선두주자인 Zara, Forever21, H&M, Uniqlo 등의 인기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 메이시스 백화점, 40개 매장 정리

- 미국 메이시스 백화점은 최근 매출이 저조한 35~40개 백화점의 문을 닫을 계획이라 발표. 매장 정리는 '16년 초부터 시행 될 예정으로, 정리되는 매장은 숫적으로는 메이시스 매장의 5%를 차지하나, 매출은 전체 매장의 1%(3억불)에 불과. 메이시스는 지난 5년간 52개의 매장을 폐쇄하였고 12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했으며, 급변 추가로 40개 매장을 정리하게 되면 73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게 됨. 아울러, TJ맥스와 같은 할인 매장들이 선호되면서 메이시스는 6개의 아울렛 매장을 오픈할 계획임. 또한, 메이시스는 최근 몇년간 이커머스 분야의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30억불의 매출이 이커머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 패션시장, 수입 명품 브랜드 강세

-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4년 수입 명품 브랜드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0.3% 증가한 2조 1,993억 엔을 기록. 품목별로는 시계가 전년대비 20.6% 증가한 5,417억엔, 가방 및 가죽제품은 9.0% 증가한 5,218억엔, 숙녀복은 6.9% 증가한 2,548억엔, 신사복은 8.2% 증가한 1,689억엔을 기록. 엔저에 따른 수입제품 가격 상승, 소비세 인상('14년 4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본 부유층 소비 호조, 외국인 관광객 소비 확대 등으로 수입 브랜드 시장은 확대되고 있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버블 붕괴 이후 중산층 70%가 일본의 소비 트렌드를 좌우해 왔으나, 아베노믹스에 따른 주가 상승 등으로 고소득층이 증가하면서 소득 상위 40%가 전체 소비를 견인. 또한, 중국인 관광의 경제적 가치는 '12년 1조 8,000억엔에서 지난해 2조 3,000억엔으로 확대됨

☞ 국제노동기구(ILO), 캄보디아 의류 및 신발산업 현황 보고서 발표

- 캄보디아 의류 및 신발 산업은 미국 및 EU와의 교역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진 '96~'97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 2014년 캄보디아의 의류 및 신발 수출은 1995년 2,700만불 대비 200배 급증했으며, 56만명을 고용하고 있음. (캄보디아 의류 및 신발 산업 종사자의 86%가 청년 여성임) '14년 캄보디아 의류 및 신발산업 수출은 전년대비 9.3% 증가한 58.4억불로, 품목별로는 의류산업이 8.3% 증가한 54억불, 신발산업은 23.9% 증가한 4.4억불을 기록. 국가별로는 對EU 수출이 전체 의류 및 신발산업 수출의 42%, 미국은 34%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 캐나다 및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음. '15년 1분기 캄보디아 의류 및 신발산업 수출은 전년대비 10.6% 증가한 15억불을 기록

◆ 주요 통계발표 자료

☞ '15년 8월 섬유류 수출입 실적

- 8월 섬유류 수출은 직물류 수출이 큰 폭으로 줄고, 사류와 제품류 등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5.5% 감소한 9억9천9백만불을 기록. 수입은 의류를 포함한 제품류 수입이 2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4.6% 감소한 13억7천1백만불을 기록

구 분	수 출(단위 : 백만불, %)			수 입(단위 : 백만불, %)		
	'14년	'15.8월	'15.1~8월	'14년	'15.8월	'15.1~8월
섬유화이버	1,413(△1.5)	96(△15.3)	789(△17.0)	223(△4.1)	17(△5.7)	132(△9.4)
사류	1,644(△4.6)	115(△12.1)	984(△11.1)	2,091(△1.8)	143(△12.0)	1,284(△7.3)
직물류	9,262(△1.1)	547(△17.1)	5,587(△10.3)	1,866(4.2)	143(△8.1)	1,237(△0.4)
제품류	3,617(5.5)	241(△13.4)	2,209(△7.7)	10,477(11.9)	1,069(△3.0)	6,404(1.1)
섬유류 계	15,936(△0.1)	999(△15.5)	9,569(△10.4)	14,658(8.4)	1,371(△4.6)	9,056(△0.6)

◆ 원자재 가격 동향

- ☞ 원면가격은 소폭 상승하면서 10월 인도물 가격이 64.09센트를 기록. 미국 농무부(USDA) 월간 보고서는 '15/'16 시즌 세계 원면 생산량을 전 시즌보다 8.6% 감소한 2,368만톤, 소비량은 1.7% 증가한 2,470만톤, 재고는 4.2% 감소한 2,313만톤으로 예상했으며, 소비 대비 재고 비율은 93.7%로 전망. 화섬원료 가격은 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폴리에스터 생산업체의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보임. 하지만, PX 가격 하락과 중국 섬유경기 부진 등으로 가격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할 전망

품 목(단위)	날짜	조건	가격	1주전 대비	4주전 대비	3개월전 대비
원면(¢/LB)	9/11	미국('15년 10월 인도분)	64.09	1.6%	△4.6%	△2.3%
PTA(\$/MT)		CIF China	630	7.7%	△1.6%	△14.4%
MEG(\$/MT)		(90 days credit term)	725	3.6%	△6.8%	△25.3%

섬유패션산업 동향

Biweekly Tex+Fa Brief

-
- 발행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조사팀
 -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44-31 섬유센터 16층
 - 홈페이지 : www.kofoti.or.kr
 - 전화 : 02-528-4024 / 팩스 : 02-528-4070
-